

'김포, 서울편입'과 주객전도



자 상 근 의
관망과 훈수

여당의 '김포시 서울편입' 계획이 나라를 일파만파 흔들고 있다. 단순히 김포시만 아니라 서울 주변 몇몇 연담도시의 동반 편입론까지 확산되고 있는데다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원칙론과 비수도권 소외론이 가세하며 지난해 대선 이후 보기도문 이슈 점화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폭풍을 도의시한 총선전략용' '국민 갈라치기'라고 공격하며 행정체제 대개편론으로 응수하고 나섰다. 순식간에 김포시나 서울시민은 물론 비수도권 주민들까지 가세하며 나라전체가 떠들썩한 모습이다.

서울시민이 아닌 서울시의 입장만 놓고 보면 그다지 나쁜 카드로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1963년 이후 지역 확장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한계치를 벌써 넘어서버린 도시계획에 새로운 여지를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최근 전세계 주요 대도시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초광역권 메가시티 구성전략과도 궤를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김포시민들 입장에서 할 말이 너무 많은 것이다. 김포시는 지난 1998년 군에서 시로 승격할 때 10만이었던 인구가 택지지구조성과 한강신도시 건설 등으로 불과 20여년만에 48만여명으로 급팽창했다. 도시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광역교통망의 부재는 심각한 생활 불편을 주고 있다. 서울 도시철도망과 연계하는 골드라인을 타보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시 주민의 고통을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정부가 기반시설 구축의 책임을 방기해온 만큼 지금이라도 획기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런데 국면은 자칫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다.

우선 김포시민 대부분이 서울편입에 찬성하고 여당이 특별법을 만들어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문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의 경우 시내 낙후지역의 반발이나 시민들의 거부감, 조세저항 등이 만만찮을 것이다. 남북도로 행정구역 분리를 추진 중인 경기도의 반대도 넘어야 할 큰 벽이다.

여기에 당장 정치쟁점화할 조짐이어서 정책의 발목을 잡을 모양새다. 야당은 여

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 상황을 정면돌파하려는 승부수로 '김포편입론'을 꺼냈으며 정략적 술수라고 주장한다. 정치권은 물론 각계에서는 국토균형개발이란 대전제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속출하고 있다. 가뜩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심화로 지역 소멸이란 극단적 문구가 수시로 등장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럴만한 시점이다.

주변상황을 볼때 거대담론에 휩쓸려 정작 눈앞에 필요한 주민 불편 해소는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쪽에서 나오고 있다. 일이 꼬이게 된다면 부동산가격만 올려놓은 채 김포시 주민들은 허탈감, 소외감만 떠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엄청난 휘발성을 가진 만큼 한가지 분명한 것을 보여준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첫번째 희생양이 되고 있는 지방을 부흥시키려는 진지한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 희망이다.

뜬금없는 주장이 큰 흐름을 바꾼 사례는 없지 않았다. 이번 논란이 주객전도 하는 발전적 논의의 장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을 것이라 믿어보자.

/skc8472@metroseoul.co.kr

'회전문 인사' 비판, 당직 인선에 고려할 것들



기 지 수 첩
서 예 진
(정치경제부)

국민의힘이 2일 인재영입위원회를 발족했다. 인재영입위원회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말 그대로 '인재 영입'을 담당하는 기구다. 그리고 이 기구의 수장으로 이철규 의원을 내정했다. 이 의원은 김기현 1기 지도부의 사무총장이었고, 최근엔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인사가 보름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돌아오니, 당연히 당내에서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 격하게는 '아내의 유혹 이냐'는 표현도 나왔다. '쩍 하나 찌고 돌아온' 상황이 됐으니 말이다. 게다가 이의

원은 친윤계(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사무총장 시절이던 지난 8월 당내 일부 의원들이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하자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 못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당 지도부가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같은 지적에 "충분히 감안했다"고 답변했으니 말이다. 당에서는 이 의원이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인재 영입 활동을 오래 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지도부가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도부는 2기 임명직 당직자 선임 당시, 정책위의장에서 사퇴한 박대출 의원을 다시 사무총장에 앉히려다가 '돌려막기'라는 반

발에 무산된 바 있다.

어떤 일을 맡길 때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업무 연속성 역시 마찬가지다.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길 만한 인사를 찾기 쉽지 않았던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자.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통합을 외치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친윤계를 다시 당직에 앉혔다. 그의 능력과는 별개로 사람들은 다른 해석을 하지 않을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의 인재영입위원장 내정 소식에 "대통령께 할 말 하겠다는 다짐은 커녕 최소한의 국민 눈치도 못 보는 현실인식"이라고 맹비난했다. 당직 인선을 할 때 능력, 업무 연속성, 세평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도 고려할 항목에 넣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syj@

오늘의 운세 11월 3일 (음 9월 20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자식 사업실패는 자업자득 自業自得. **48년생** 일상을 살아가는데 남을 괴롭히는 부정보다는 긍정의 마음을. **60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위로. **72년생** 다정다병이니 지나친 간섭보다는. **84년생** 원인을 알면 방법을 찾을 수가.
- 37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몰아서 가야 실수가 없다. **49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61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다. **73년생** 남들보다 앞서 나가니 불편. **85년생**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야 하는 날.
- 38년생** 병도 약도 다 제 할 탓인데. **50년생** 욕심이 지나쳐서 만족하기 힘들다. **62년생**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를 얻는다. **74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운이 활짝 열린다. **86년생** 기회가 주어져도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으니 결단야 필요.
- 39년생** 부질없는 참견은 실수 연발. **51년생**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명확한 일이 없다. **63년생** 투자를 권하는 이가 있으니 현혹되지 마라. **75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높은 벽찬 하루이다. **87년생** 2보 전진을 위해 한발 물러서도록.
- 40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기회가 오면 적극 활용. **52년생** 강을 건너어도 배는 다음을 위해 잘 보관. **64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76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획좌불안식. **88년생** 작은 일이라도 그냥 넘기지 마라.
- 41년생** 뒤늦게 새로운 이성만남을 경계. **53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 본다. **65년생** 배우자 탓이 아니라 순전히 내 탓임을 명심. **77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 희망을 버리지 마라. **89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 42년생** 돈거래는 확실한 거절이 상대방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 **54년생** 날씨가 변화무쌍하니 우산과 비옷을 챙겨서 나가라. **66년생** 남을 배려하면 내게도 득이 된다. **78년생** 무심결에 말조심. **90년생** 명성이 깔렸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하라.
- 43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55년생** 혼자서 어려운 일을 맡으려고 애쓰지 마라. **67년생** 과욕으로 새로운 재물근심이 생긴다. **79년생** 도대체 원활한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91년생** 명성으로 이직을 재검토하는 시간.
- 44년생** 누구든지 인연을 맺는 데는 처음이 중요하다. **56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니 주의. **68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운 날. **80년생** 뒷사람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을 무사히 처리. **92년생** 모르는 투자는 삼가라.
- 45년생** 식구끼리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57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 **69년생** 정치적인 언행에 끼어들면 곤경을 겪는다. **81년생** 서남쪽으로 가면 행운. **93년생** 하나를 투자했는데 열을 얻는 운 좋은 날.
- 46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한잔 술이 달래준다. **58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70년생** 망설임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준다. **82년생** 인정은 변하기 쉬운 실력을 쌓아. **94년생**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요행수를 바라지 말 것.
- 47년생** 산책을 하며 주변에서 운동. **59년생**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다. **71년생** 행복의 원천은 가족에게. **83년생** 고민 말고 하나를 양보해보시라. **95년생** 근목자혹 즉 역목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겹어지듯 선한 사람과 친하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

김상회의四季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동서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진리다. 얼마 전 하버드 의과대학의 실험결과를 인용하며 행복호르몬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많은 의과대학 등 연구팀은 웃음이 주는 호르몬과의 역학관계 등에 대해 광복할 만한 연구 결과를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다. 역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이 사람이 웃으면 세로토닌 또는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인간의 면역세포의 활동도를 최대 200배까지 높인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에 걸쳐 거의 모든 암 종합병원에서는 웃음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웃음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율광사의 법회 때에도 웃음 전문가를 초빙하여 법회가 끝난 후 2부 특별 순서로서 웃음세미나(?)를 드린 적이 있다. 그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웃음의 장점을 함께 참석해 주신 신도님들과 실습을 곁들여 듣고 있자니 새삼 어릴 적 순수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은 덤이요, 뭔가 응어리진 답답함이 풀려나가는 후련함은 마치 훌륭한 명약을 먹고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보니 진정한 웃음다운 웃음을 웃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웃음 전문가의 말씀에 의하건나 웃는 것도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단다. 웃음은 일종의 전신운동이라 웃을 때 얼굴의 신경 요소와 근육뿐만 아니라 가슴과 배 근육 미세한 곳까지도 진동을 주어 평소엔 웃지 않으면 움직여지지 않는 몸의 부분까지도 운동 효과를 준단다. 이러한 움직임이 신경점유와 돌기에 자극을 주어 행복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라토닌이나 옥시토신을 분비케 하여 몸의 저항력을 높이고 이는 몸과 마음에 긍정 시너지를 선순환시키는 것이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30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0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